

# 知的財産權의 經濟的 價値評價

현 병 환\*

\* 한국생명공학연구소 기술지원담당, 경제학박사

## Abstract

지적재산권은 인격권적인 측면과 재산권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바, 인격권은 비경제적인 측면의 권리이므로 그 가치의 평가는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회수하는 재산권적인 측면에 대해 이루어진다. 또한 지적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체(無體) 재산에 대한 가치이므로 실제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등 유체화(有體化)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. 그러므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적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유체화 또는 가상의 유체화의 과정을 전제하여 상대적인 가치만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. 뿐만 아니라 지적 소유권의 재산권적 가치는 평가시 당사자간의 상황과 교섭력에 따라 달라지며, 그 평가치도 불변인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다.

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특허권의 가치산정방식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코저 한다.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크게 4가지(일반적 실시료 유추 산정법, 발명 실시수익 기준법, 일정산식 산정법, 평점법)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.

본질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가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성립되기 보다는 한명의 판매자와 한명의 구매자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을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하여 서로의 거래교섭력(Bargaining Power)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.

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포함하여, 특허제품의 수요예측방법을 통한 잠재시장 추정, 특히 신기술의 전주기 경제성 분석단계로서 4단계 방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.